

상상력으로 만드는 '서노송예술촌'

선미촌문화기획단, 22일까지 대학생 실험실 모집 공고
서노송동의 문제점 해결 위한 해법 제시하는 활동 전개

전주지역 대학생들이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 예술마을로 변화중인 서노송예술촌을 실험실로 삼아 서노송동의 변화를 이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선미촌문화기획단은 오는 22일까지 전주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밝고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서노송예술촌을 '실험실'로 삼아 문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서노송대학생 실험실'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서노송동의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환경 개선 등 서노송동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상력과 아이디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휴학생을 포함한 전주소재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선미촌문화기획단은 서류 심사와 심층면접을 3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팀은 기획안에 따라 약 5개월간 서노송동 일대의 문제점을 선정 후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선미촌문화기획단은 제시된 해결책을 전시하는 등 실험실 결과물을 전주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방법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cf.or.kr)에서 내려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기한 내에 이메일(jongbok2016@naver.com)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서노송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서노송 대학생 실험실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와 관련해 '여성, 인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선미촌 문



화재생사업'을 주제로 201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ESD(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미촌문화기획단(063-283-89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정읍시예술회관이 최근 옹벽을 도자기 벽화로 새롭게 단장해 볼거리를 마련했다.

정읍시예술회관, 쾌적한 문화기반시설로 새롭게 탈바꿈

정읍시예술회관이 쾌적한 문화기반시설로 새롭게 탈바꿈된다.

지난 1992년에 개관한 정읍시예술회관은 지역문화와 예술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와 기능 저하로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예술회관은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우중충했던 야외주차장과 인도를 정비했다.

또 옹벽을 도자기 벽화로 새롭게 단장해 볼거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예술회관의 객석이자 방석도 교체·정비했다. 이 외에도 공연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편지꼴로 꾸며 방문객 맛을 준비도 마쳤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 예술회관 주변에 경관조명과 아트로드 조성,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문화적인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며 "우수 작품 초청 공연 등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스위스 박물관 불화, 한국이 보존처리 '추파당대사 진영'

국립중앙박물관이 스위스 리트베르크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불화 '추파당대사 진영(秋波堂大師眞影)' 보존처리를 마쳤다. '외국 박물관 한국식 지원 보존처리' 사업으로 '추파당대사 진영'을 보존처리, 리트베르크박물관 한국 미술 담당 큐레이터에게 전달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존처리된 불화는 16일 스위스로 이관될 예정이다. '추파당대사 진영'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리트베르크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 불화다. 리트베르크박물관은 이 불화를 편화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 전시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한국 전통 불화 족자로 보존처리를 청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는 X선 촬영, 적외선 분석 등 사전 조사를 통해 손상 정도와 파과 보존처리 흔적을 확인했다. 앞면에는 물에 노출돼 생긴 얼룩이 화면 전체에 번져 있었다. 표면에는 흰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손상이 심했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곰팡이와 얼룩을 제거하면서 결손된 부분은 비슷한 재질의 비단으로 보강했다. 뒷면에 있던 딱딱하게 굳은 접착제와 종이도 제거했다. 기존의 편화에서 족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족자 화장 부분은 안료를 재색해 전통 불화 형식을 갖추게 됐다.

'추파당대사 진영'은 19세기 작품으로 추파당이란 법호의 실존 승려를 그렸다. 관련 문헌이 없어 이 승려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진영은 사찰에서 주로 입적한 승려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영탱(影幀)이라고도 한다.

이날 보존처리 작업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불화 '추파당대사 진영(秋波堂大師眞影)' 보존처리를 마쳤다. '외국 박물관 한국식 지원 보존처리' 사업으로 '추파당대사 진영'을 보존처리, 리트베르크박물관 한국 미술 담당 큐레이터에게 전달했다.



"전북지역 종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더욱 활발히"

국립전주박물관회, 창립이사회 개최

국립전주박물관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국립전주박물관회가 발족했다. 지난 4일 국립전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국립전주박물관회는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는 국립박물관의 운영취지에 발맞추어,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박물관', '생활 속에 녹아드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무연 예술에술대 미래

교육연구소장을 이사장으로, 부이사장에는 이근호((유)한스 대표이사), 이계순(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장혜영(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사를 선출했다. 이외에도 박물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이사에는 심인택 우석대학교 국악과 교수, 교육이사에는 백정진 (사)타울림 대표, 장관섭 (주)영광 YKMC 대표이사를 재정이사로 선임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는 강기문(강기문화재단사무소 대표), 유희태(민들레 포럼 대표) 이사가 추천됐다. 또한 전북지역 8개 대학의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과 함께 관광업계, 건축업계, 의식업계뿐만 아니라 영화, 국악, 패션, 서예 등의 예술계, 종교계까지 사회 전반에 이르는 여러 분야의 대표들로 이사진이 구성됐다.

최무연 이사장은 "앞으로 국립전주박물관이 전북지역 종합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서 더욱 활발히 운영되고,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차 일반회원 모집은 종료됐으며, 2019년 5월 중 2차 회원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http://jonju.museum.go.kr/)을 통해 알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역사를 딛고, 행복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서 13인 농부들의 북콘서트 열려

지난 13일 오후 4시에 전북도민들의 문화공간 원평집강소에서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농부, 책을 쓰다'를 펴낸 13명의 전북 농부들을 초대에 북콘서트 <책을 쓴 농부들의 '봄날'>을 열었다.

전북도 문화유산 활성화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제시장(박준배)은 "원평집강소가 동학농민혁명의 어두웠던 역사를 딛고, 밝고 행복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남긴이 있는 공연과 인문학을 통해 시대정신으로 다시 살아나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하 공연에는 김제시 (사)지평선평화합단(지휘자 심춘택), 소프라노 김진희 성악가, 익산 동아합창단 김경환 단장, 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유영현 학과장 등이 출연한 작은 음악회가 펼쳐졌고, 농부 저자들의 글 쓴 소감이 공연 사이사이에 감

동어린 이야기로 이어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집강소 이웃들이 마련한 저녁식사와 집강소에서 재현한 동록개막 걸리 시음(재현 노경운), 지역농산물 시식 체험과 지역생산물 홍보 전시 판매를 위한 작은 원평장터까지 집강소 마당에 펼쳐져 풍요롭고 화기애애한 책 잔치가 됐다.

지난겨울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발행한 '농부, 책을 쓰다'는 총 13명의 저자(김연화, 김은경, 나혜숙, 이은주, 조성천, 강미규, 강선화, 김계규, 심순희, 이명월, 이성용, 한광수, 황인순)가 스토리텔링사관 학교에 모여서 글쓰기를 공부, 낮에 농사를 짓고 밤에 글을 짓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부들이 빛이낸 빛나는 성과물이다.

동학농민혁명 원평집강소는 2015년에 문화재청에서 복원한 후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모악산문화공동체와 함께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활용의 좋은 예로 지역에서 평가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